

‘세무정보’ 컴퓨터로 받는다

세무정보 ‘안방시대’...버튼하나로 원하는 정보 ‘척척’ 세무관련 정보만 12만건 수록 ... 월사용료 8만원



법치 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법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전무하다. 특히 세법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엄청난 분량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치는 않다.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개통식을 가진 열린세무정보(대표 : 박내춘)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세무정보서비스가 일반인들의 관심속에 운용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3월 국세청이 전화를 이용한 자동 세무상담 서비스(TRS)를 실시, 하루평균 이용전화가 4천여통에 이르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번 열린세무정보의 컴퓨터를 이용한 세무정보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세무상담의 ‘안방시대’가

열리게 된 것.

이번에 개통된 세무정보서비스는 열린세무정보가 세무 및 부동산 관련정보를 수집·정리·가공하여 한국데이터통신의 주컴퓨터에 저장, 이용자의 PC를 이와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 키보드만 누르면 원하는 정보를 꺼낼 수 있게하는 서비스로, 현재 12만건의 각종 세무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데이터통신의 천리안Ⅱ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세금에 관한 각종 법령·예규·판례는 물론 사례연구, 분석, 부동산 법률, 세무소식, 세무인명록 등 세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3백페이지짜리 책4백권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조작방법에 의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려면 열림세무정보에 초기가입비 3만원(천리안Ⅱ 1만원, 열림세무정보 2만원)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월 기본료 8만원(기업체는 8만5천원)을 내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퍼스널컴퓨터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데이터통신이 제공하는 보급형 단말기를 25만원에 구입하거나 월8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열림세무정보에서는 회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열림은 온라인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요원으로 하여금 무료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열림세무속보(격주간), 열림

세무정보(월간)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일반은 물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중계사, 기업체 세무담당자 등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열림의 회원이 될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단,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 277-0522로 문의하면 된다.

천리안Ⅱ :
생활정보에서 전문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데이콤네트를 통해 이용자의 퍼스널컴퓨터 또는 단말기에 직접 제공하는 종합정보은행 서비스로,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버튼 하나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며, 물품 및 도서의 주문은 물론 신용카드에 의한대금결제까지 자동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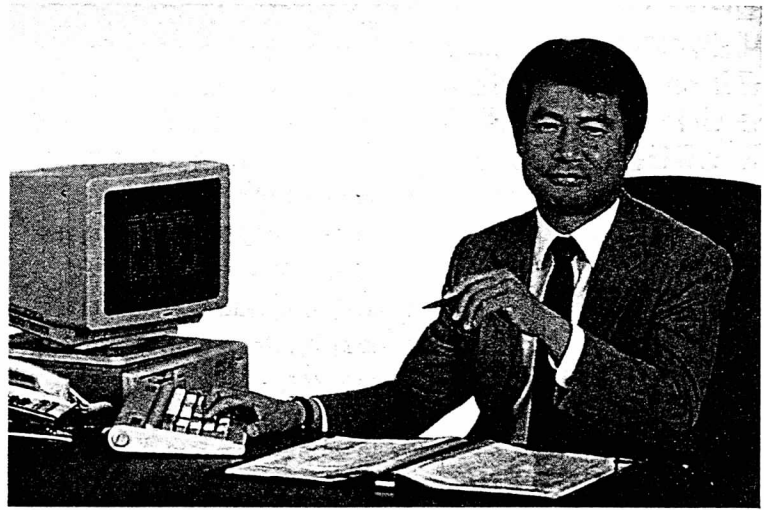
인 터 뷰

“국내 최고의 종합법률은행 만든다”

법률 정보 전문제공업체가 생겨났다. 최근 데이터통신 대강당에서 개통식을 가진 열림세무정보(株)는 12만건에 달하는 세무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데이터통신(株)의 천리안Ⅱ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유료서비스를 개시했다.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에 관한 업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를 시작한 열림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쏟아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은 물론 업계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열림세무정보의 오늘을 있게 한 주역인 박내춘시장(46세)을 만나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사업동기, 앞으로의 계획등을 들어본다.



열림세무정보 박내춘시장

세무사출신으로 정보서비스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세무업무란 전문직종인 만큼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신속한 공급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인쇄물을 통한 정보습득은 정보의 양, 신속성, 종합성, 편리성 등에 그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러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열림 세무정보를 국내 최고의 종합법률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말까지 노동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오는 91년말까지는 민사·형사·가정법률 등 모든 법률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보급의 필요성과 출판물에 의한 정보전달의 한계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

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통식을 가진 열림의 세무정보서비스 사업의 시작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개시가 정보서비스 사업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기대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열림의 세무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관계자들이 어려운 전화상담을 받을 경우 즉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하여,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서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로이 발생하는 조세뉴스나 예규, 판례 등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과거 20년동안의 모든 예규, 판례, 논문, 법령 등을 간단한 키보드의 조작

만으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편리함을 이용자들은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안방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복잡한 세무 관련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보화사회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형상화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 오시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오랜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수많은 세무 관련자료들을 5~6년이란 짧은 기간에 모두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너무 방대함으로 해서 체계적인 규칙을 정해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객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열림을 종합법률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노동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오는 91년말까지는 민사, 형사, 가정법률 등 모든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열림세무정보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면서, 국내 정보산업의 조기정착에 미진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